

끼(才)네스 북

이거 를 두드리면, 배움의 길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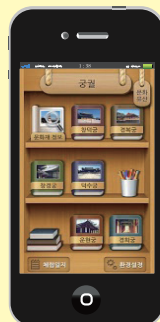
| KOCCA 미래전략팀 |

직장인 미스 김은 바쁘다. 그럼에도 외국어도 술술, 자격증도 척척 따내는 미스 김을 보고 주변 사람들은 '미스 김에게는 하루가 48시간 인 것 같다'며 수군댄다. 그녀의 비밀은 바로 스마트폰! 다양하고 효과적인 교육용 앱을 통해 능률적인 시간 관리를 하고 있는 미스 김이 각각의 연령대에 맞는 교육용 앱들을 소개한다. 천하무적 미스 김을 따라잡아보자!



몸속을 보는 투시력, <몸뽀뽀 사진기>

스마트폰으로 증강현실(AR) 사진을 찍으며 인체에 대해 배워보는 앱이다. EBS 홈페이지나 앱에서 부위별 '마법카드'를 내려 받아 신체를 촬영하면 몸속 장기가 3D 영상으로 표현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마법 같은 앱.



즐거운 문화유산 체험, <에듀모투>

스마트폰의 GPS서비스를 이용하여 지도 위에 현재 내 위치를 확인하며 문화유산을 찾아 문화재정보, 만화, 퀴즈와 같은 이벤트를 즐길 수 있다. 증강현실 서비스를 통해 현재 위치에서의 문화재 거리 등을 알 수 있고 이벤트 통과시 발도장도 팡팡! 지루한 탐방은 가라,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재미있게 감상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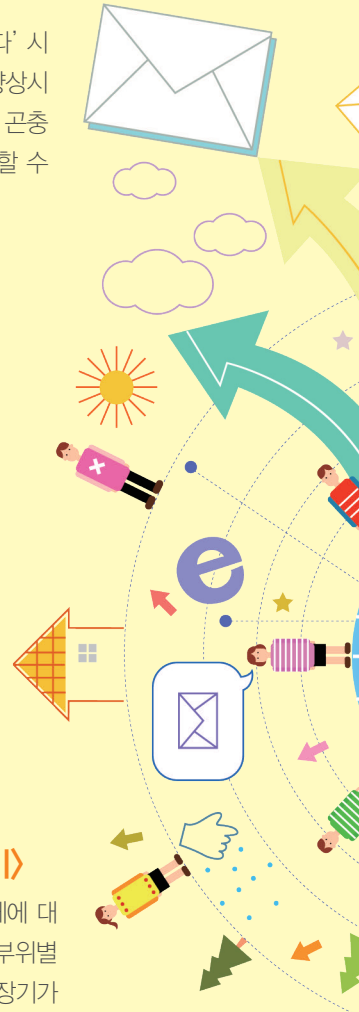
파복로극 꿈꾸며, <곤충이 살아있다>

이 앱은 시지웨이브가 기획한 10여종의 '살아있다' 시리즈의 첫 번째로, 체험관찰과 사물 인지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상현실 3D 콘텐츠다. 소중한 생명인 곤충을 잡지 않아도 되고 실제처럼 생생하게 체험도 할 수 있는 1석 2조의 기회.



사과나무의 가르침, <모두 떨어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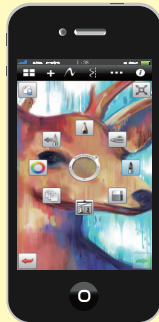
직접 체험하며 익힐 수 있는 놀이용 그림책 형태를 띤 인터랙티브 스토리북(Interactive Storybook) 앱. 스마트 기기의 물리센서를 이용한 인터랙티브와 게임을 통해 어린이가 쉽고 자연스럽게 '중력'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뉴턴에게 사과나무가 있었다면, 우리에게겐 이 앱이 있다!





저 별은 나의 별이 어떤지, <Star Walk>

GPS를 이용하여 밤하늘의 천체를 보여주고, 위키피디아와 연결되어 천체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까지 제공해주는 앱. 기기를 흔들면 자이로스코프와 나침반 등을 통해 실제 별들의 위치를 관찰할 수 있다. 현재 시간, 현재 위치의 천체 뿐 아니라, 현재 위치에서 과거나 미래의 하늘까지 볼 수 있으니 스카이 워크를 통해 시간 여행을 떠나보자!



예술적 재능을 펼쳐라, <SketchBook Mobile>

이 앱은 그림 그리기에 필요한 모든 도구들을 구비하고 있으며 직관적이고 효율적인 사용 환경을 제공한다. 언제 어디서나 순간적으로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이미지화시켜 저장할 수 있다. 이제 예술적 영감을 놓치지 말고 꼭 붙들어 놓자.



게임스 어떻게 지내니, <practice>

외국어를 연습할 친구가 필요할 때, 나처럼 외국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면? 프랙티스는 언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서로 상대방의 언어로 대화하는 외국어 실습의 장을 제공하는 어학 학습 및 실습 앱으로,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친구도 사귀고 채팅을 통해 외국어를 연습할 수도 있다.



배움의 바다를 항해하라, <iTunes U>

이 앱을 통해 하버드, 예일대, MIT, 스탠포드와 같은 유명 대학의 강의 뿐 아니라 TED를 비롯하여 EBS 강의까지 무료로 들을 수 있다. 교수는 아이북스 스토어나 앱 스토어 등의 링크를 올리거나 PDF나 영상 자료도 첨부할 수 있다. 이미 전 세계 1,000개가 넘는 대학에서 이 앱을 활용하고 있으며 50만개가 넘는 비디오, 음성 강의를 제공하니 뜻이 있는 자에게 배움의 기회는 열려 있다.



지하철 안,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에 열중하고 있다. 바쁜 현대인에게 생활밀착형 스마트폰의 강점은 이동하고 대기하는 자투리 시간마저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새로이 교육 도우미로 급부상하고 있는 스마트폰과 교육앱들이 더욱 반갑고 소중하다. 학무지경(學無止境). 배움에는 끝이 없고 스마트 시대에도 배움은 계속된다.